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 교실 실시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지난 21일 고흥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예비 학부모 50여명을 초청하여 '2019.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철한 부모와 교사가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듭니다. 라는 학부모 대상 교육장 정철교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시간에는 첫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교육 및 학교 생활 안내, 가정 내 자녀교육에 대하여 다문화학생 대상 지도 경험 및 풍부한 강사(삼호중앙초 교장 김미경)를 위촉하여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은 자녀를 웃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고흥군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센터 업무 및 이용 안내, 고

고흥교육지원청, 학부모 50여 명 초청 교육공동체 간 꾸준한 소통·역할 당부

흥군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공교육에 발을 내딛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고흥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작년 427명을 넘어 더욱 늘어날 예정이며 중도입국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문화중점학교(도화초), 문화예술동아리(고흥동초, 포두초, 괴역초, 두원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미(고흥군가족센터) 팀장은 "지난 시기 다문화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교육 컨텐츠, 홍보력, 시설 이용 등 각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내용

과 참여가 확보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학부모 대상 정철교 교육장은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 행복교육의 시작은 학부모와 교직원 간 소통이 필수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믿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음을 위해 정철한 공직자의 태도,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대하는 넓은 부모의 마음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동체 간 꾸준한 소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행복한 고흥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대학 재학 시절 각종 국제학술대회에서 영어 언어인지 능력에 관한 논문의 제1저자 자격으로 발표해 나선 김지효씨(사진 왼쪽). 올해 조선대 영문과를 수석졸업한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걸어 올 예정이다. 24일 밝혔다. 오른쪽은 지도교수인 고연수 교수.

“학술적 결과 도출 됐을때 뿌듯”

조선대 김지효씨

“아기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의미있는 원리랄까요? 학술적 결과 도출했을 때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죠”

인문학 위기가 상아탑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뜻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학적 연구활동을 펼쳐 내로라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까지 나선 '스타급 학부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조선대 영어영문학과를 수석졸업한 김지효씨. 학부졸업과 함께 연구자의

표하기도 했다.

2년 전, 한국장학재단의 '인문 100년 장학생'과 서울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내친 김에 4학년 때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신청해 1, 2학기에 학부 과목과 함께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는 등 식지 않는 학구열을 이어왔다. 국내 유일의 음성학연구소에서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창한 말도 자기 표현도 쉽지 않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어려움도 많았다. 당장 실험 참가자 모집부터 늘 난관이었다. 비지땀을 흘리며 모집광고에 나선 끝에 실험 한 번에 70~80명

5세 미만 영아 언어인지연구, 국제학술대회 이단 발표
“참가자 모집 힘들지만 학술적 이론 나올 때면 보람차”

길에 접어든 새내기 대학원생이지만, 김씨의 대학 생활 4년은 '박사급 학부생'이라는 애칭을 듣기에 충분하리 만큼 너넨한 학술적 성과를 거뒀다.

그 중에서도 김씨가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지난해 6월 국제영어학회(ICIS)로부터 받은 'Undergraduate Travel Awards'. 이 상은 소수 민족·인종 등에 속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 실적과 향후 연구계획서, 교수추천서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국제학술행사 등록비와 경비를 지원해주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만나는 특전도 주어진다.

국내 유일의 수상자인 김씨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50여 전 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학부생으로는 드물게 제1저자로 논문을 직접 발

의 아이들을 모을 수 있었고, 영아들의 꾸밈없는 말과 행동은 그들만의 행동원리 언어작용을 설명해주는 학술적 해석으로 이어졌다.

입학과 동시에 달린 주변 환경이다. 입시에 제도전환 지 고민하느라 캠퍼스 라이프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그가 전환점을 맞은 건 2학년 시절,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받고 당연히 시 여겨온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매우 복잡한 원리나 정교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길로 영어언어학에 푹 빠져들었다.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까지 한 그는 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해 영어교육학자나 비교언어학 전문가 등을 꿈꾸고 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가 2019학년도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지역중심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를 주제로 문화강좌를 실시한다는 것.

강좌는 매월 화요일 저녁 7시에 격주로 열리며 매달 일요일 1회 답사가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답사 참가 희망자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전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프로그램 신청 및 관련 문의 사항은 순천대박물관(061-750-50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광양서 경청올레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21일 광양읍운초등학교와 광양여자중학교를 잇따라 방문,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경청올레를 실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두 학교 관계자들에게 "2월 학교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구성원 및 교육계획을 함께 수립·공유함으로써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교육감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니 이제 교사가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자발성과 열정을 발휘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자녀까지 학교 주안으로 2월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새학년 준비가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정책을 마련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연수와 출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어진 교직원과의 대화에서는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학교자율사업선택제 △행정업무 경감 대책 △현실적인 교권보호대책 △연구학교의 순기능 고취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환 기자

전남대, 수의사 시험 3년 연속 100% 합격

전남대학교가 수의사 국가시험을 3년 연속 100%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대 수의과대학(학장 배춘식)은 지난 1월 18일 시행된 제63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성태훈 학생을 비롯한 응시생 45명 전원이 합격했다.

이번 국가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97.1%인 반면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대학은 전남대를 비롯 전북대, 충북대 등 3개 대학에 불과

하다.

특히 전남대는 61회 시험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배춘식 학장은 24일 "응시 학생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며, 학생회 차원의 응원과 교직원들의 뒷받침에 힘입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